

잡아함경96. 바라문경

날짜: 6월 6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23>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리를 가지고 사위국에 들어가 걸식하시었다.

그 때에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 어떤 바라문은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었다. 때에 세존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나이 많고 몸이 쇠약한데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는가.”

바라문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고오타마시여, 우리 집에 있는 재물은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고 며느리를 들인 뒤에 집을 나왔나이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고 있나이다.”

“너는 내께서 한 게송을 받아 외워 가지고 돌아가서 대중 가운데서 너의 아들을 두고 말하겠는가.”

“그리하겠나이다. 고오타마시여.”

그 때에 세존께서는 곧 게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아들을 낳아서 마음이 기뻤었고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들인 뒤에
나는 그것 다 버리고 집을 나왔네.

어떤 시골의 부랑한 아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등지니

사람 얼굴에 나찰의 마음
그는 늙은 아비를 버렸느니라.

늙은 말이라 쓸 데가 없다 하여
곧 보리껍질 먹이까지 빼앗겼나니
아이는 어리고 아비는 늙어
집집으로 다니면서 밥을 빌었네.

아들은 귀해하고 사랑할 것 아니요
구부러진 지팡이가 제일이로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 막아주고
험한 곳을 면하여 편안케 해주네.

사나운 개를 물리쳐 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나를 붙들며
깊은 구덩이나 빈 우물이나
풀이나 나무나 가시밭을 피하여
지팡이나 위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꼿꼿이 서서 넘어지지 않는구나.

때에 바라문은 세존에게서 이 게송을 받은 뒤에 바라문 대중 가운데로 돌아가 그 아들을 두고 말하였다. 먼저 대중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고 말한 뒤에 위에서 말한 게송을 외쳤다. 그 아들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곧 그 아버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몸을 어루만지고 목욕시키고 푸른 옷을 입힌 뒤에 집 주인으로 삼아 모셨다. 때에 그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훌륭한 족성이 되었다. 이것은 저 사문 고오타마님의 은혜다. 우리 경전에 말한 것을 보면 ‘스승을 위해서는 스승다이 공양하고, 스님을 위해서는 스님다이 공양하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얻은 것은 다 사문 고오타마님의 힘이니 그는 곧 내 스승님이다. 나는 이제 제일 훌륭하고 묘한 옷으로써 고오타마님께 바치리라’고 생각했다. 때에 바라문은 제일 훌륭하고 묘한 옷을 가지고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위로한 뒤에 물러나 한 쪽에 앉아 여쭈었다.

“고오타마시여, 나는 이제 집에 있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고오타마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경전에 말한 것을 보면 ‘스승을 위해서는 스승으로 공양하

고, 스님을 위해서는 스님으로 공양하라고 하였나이다. 오늘 고오타마님께서는 곧 나의 스승님이 되었나이다. 나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 옷을 받아 주소서.”

세존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곧 받으셨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바라문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여 가르치시고 기쁘게 하시었다. 때에 바라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